

‘국내뿐 아닌 해외로 경쟁무대 넓힐 터’ 자체 연구소 설치, 세미나·워크샵으로 전문성 강화



D&C의 패키지디자이너들은 비교적 의욕 넘치는 젊은 디자이너들로 구성되어 있다.

패 키지디자인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향상되어 감에 따라 기업들도 판매전략의 최우선으로 패키지디자인을 꼽고 있다. 얼굴없는 세일즈맨 이라 불리울 정도로 상품의 판매를 좌우하는 패키지디자인을 창조해 나가는 전문 종합회사인 디엔시(대표 김명하)는 마포구 서교동에 자리잡고 있다.

20여년의 전통과 국내 최고의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니드를 충실히 만족시키고 있는 디엔시 가족들은 국내 포장디자인계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체하고 자부한다.

디엔시는 패키지디자인을 비롯하여 CI나 SP를 담당하는 20여명의 디자이너들로 구성되었으며 그들 대부분이 응용미술분야를 전공한 전문 인력들이다. 크리에이티브 1팀인 패키지디자인팀은 주로 식품이나 생활용품의 포장디자인을 담당하고 있으며 크리에이티브 2팀은 CI, SP를 담당하고 있다.

“CI의 목적은 기업의 경영이념과 전략에 적합한 이미지를 창출, 기업문화를 긍정적으로 가시화하는데 있으며 한 기업의 이미지를 효과있게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SP는 최종적인 구매동기를 유발하는 판촉활동입니다.”라고 디자이너는 밝혔다.

해태그룹 계열사이기도 한 디엔시는 해태제과의 제품을 70%, 유한킴벌리나 유니레버 등 타사제품을 30%정도하고 있으며 기획마케팅 부서를 따로 두고 포장디자인 제작에 들어가기 전에 철저한 배경연구와 상황분석, 시장조사를 충분히 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속성을 파악하여 종합적인 적략을 제고하고 있다.

“패키지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최근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국가경쟁 시대로 돌입하여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가 원하는 디자인을 창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업들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패키지디자인 분야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 과감한 투자를 꺼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라고 이종욱 부국장은 말했다.

또한 어떠한 일이든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인데 포장구조나 기술을 연구하는 부서와 의견이 일치되지 않거나 고객들이 너무 시간을 촉박하게 제시해 더나은 디자인 개발을 할 수 없는 것이 늘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덧붙였다.

**“디엔시는 국외제품을 바로 습득하여 그 흐름을 파악하고
국내 패키지디자인 분야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경쟁무대를 국내 시장에만 둘 것이 아니라 해외무대로
넓히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디자인 전문회사이고 우수한 전문인력을 자랑하는 디엔시라 해도 늘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임하는 그들은 언제나 신입사원이란 마음가짐으로 노력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들은 기계에 대한 지식이나 인쇄 프로세스 등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관련서적과 씨름하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실무에 옮기면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디엔시의 역사와 가족들의 이러한 마음가짐이 지금의 위치로 끌어 올릴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으리라 짐작해 보았다.

이 분야에서 10년간이나 몸담아 왔으며 현재까지 직접 패키지디자인에 참여하고 있는 이 부국장은 “디자인의 추세는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디엔시는 국외제품을 바로바로 습득하여 그 흐름을 파악하고 국내 패키지디자인 분야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포장디자이너로서의 자부심도 대단합니다. 얼마전 저희회사가 제품을 선택할 때 소비자들이 고려하는 선호도 설문조사를 여대생, 여학생, 주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맛으로선택하겠다’가 27%, 광고가 26%, 가격 14%, 패키지 13%, 브랜드 12%, 제조회사 8% 순으로 나타났던 것만 보아도 소비자들의 패키지에 대한 인지도가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밝히며 앞으로 경쟁무대를 국내시장에만 둘 것이 아니라 해외무대로 넓히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디엔시는 디자인 전략을 수집하고 디자인과 마케팅의 학제화, 전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자체내 디자인 연구소를 두고 있기도 하다. 디자인 전문인력 확보 및 재능향상을 위하여 각종 디자인세미나, 디자인 워크샵, 국내외 디자인 관련 자료의 체계화, 시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디엔시를 뒷받침하는 초석의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고객에게 최상의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디엔시는 신뢰감 있는 일처리로 지금까지 수많은 히트디자인을 탄생시켰으며 앞으로도 전문 종합디자인 회사의 위치를 확고히 할 것이다.

이선하 기자



디엔시의 패키지디자인 제품들